

작품-인간-환경의 관계설정에 따른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ical Analysis of the Museum Exhibition Space
by Interrelationship Between Object, Human and Environment

권영걸* / Kwon, Young-Gull
이지영** / Lee, Ji-Young

Abstract

Since 20th century, the exhibition has expanded to more diverse fields and recognized as the medium which can build network among the Art, Human and society. Space design, although developed within mutual interaction an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factors, has been treated without those background. Therefore it is straightforward to examine the exhibition space design synthetically not limit it by the analytical elements. Assuming three main mutual interactions, object human, and environment, we have attempt the typological analysis to the museum exhibition space by studying characteristics. While the exhibition space design has been analyzed through two dimensional interpretation, on this study, we structuralize diverse discussion of the exhibition space design by relation-centered and relative analysis. Therefo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design expression through typology of both physical and behavioral feature. In the conclusion, the outcome provides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among object, human and environment and useful measurements to designer who outline exhibition space design.

키워드 : 전시공간, 공간구성, 행태, 유형, 상호관계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전시의 역사는 미술관¹⁾의 역사와 관련되어 전개되어 왔다. 18세기에 유럽의 사회변화와 함께 형성된 공공적 미술관의 개념과 함께 전시와 전시공간의 본격적인 역사도 시작되게 된다. 19세기에 이르러 미술관이 체계화, 제도화 되면서 전시와 전시공간의 의미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전시는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시 공간은 예술(object), 인간(human), 그리고 사회(environment)²⁾를 매개하는 장소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경계의 의미와 제도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적인 의미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간을 디자인 하는 과정이 여러 요인들과 요소들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단절되어 다루어져 분석되었다는 것이 총체적인 위기로 당면한 지금, 전시공간이 예술작품, 관람자, 그리고 사회를 매개하는 공간이란 점을 살펴 볼 때 공간에 대한 논의와 해석의 방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꼈다.³⁾ 즉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지니지만 각 분야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을 뿐 종합적으로 고찰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전시공간의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되는 최근의

1)본 논문에서 미술관이라는 용어는 조형예술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규정한다. 또한 내부적 속성을 규정하는 개념의 전시공간과는 구별하여 그 토대가 되는 건축적 대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2)본 논문에서 환경(environment)의 개념은 공간 행태론의 견지에서 인간에 대응하는 환경, 즉 건축물이 형성하는 behavior setting의 개념이 아닌 건축적 대상의 주변부인 대지의 물리적 상황과 나아가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김기현, 건축 환경 인식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1에서 김기현은 공간과 건축의 위기를 다양한 요소들의 통일된 개념의 부조화로 말하고 있다.

* 정희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동향을 살펴보면 예술의 변화를 수용하는 전시공간으로 설치(installation) 개념의 연구가 있다.⁴⁾ 이는 작품을 위계가 같은 단순 사물로 고려해왔던 기존의 공간유형의 연구와 달리 작품이 가지는 예술적 특성을 고려함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관점이 현재의 시점에 국한되고 미학적 견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예술작품(object)의 중심에서만 분석했음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술관의 구조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찰한 시도가 있다. 이는 거시적 환경의 관계성으로부터 공간구성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연대기적 변수를 고려한 세분화한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⁵⁾ 그러나 건축적 구조의 유형화였다는 점에서 전시공간이라는 내부적 요소들의 심층적인 논의까지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박물관의 공간 구조에 있어서 연속성 및 체험적 속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는 전시 공간이라는 환경을 인간과 사물의 상호연관성에 따라 해석했다는 점에서 공간 디자인에 있어 현대적 요구를 잘 반영한 의미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석에만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의미있는 시도들을 수용하여 전시공간을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소극적 시각과 ‘미술관 건축의 내부’라는 물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시와 전시공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공간을 이루는 요소를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찰함에 의미를 두고자 함이다. 이는 그동안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동시대의 패러다임 아래 분석하고, 디자인의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도출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가치를 새롭게 함에 의미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시공간이라는 대상을 사물과 인간, 환경의 관계 설정과 해석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서로 단절되어서 다루어졌던 요소들을 상호작용하는 총체적 인자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공간 구성의 유형화에 있어 물리적 규모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 이후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미술관의 전시공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20세기의 미술관 건축이 18세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하나의 맥락으로 유형화하기 위함이다.⁷⁾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공간구조는 전시

와 관람을 위한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문헌 조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개념과 함께 건축의 유형으로 자리잡은 공공 미술관과 그 내부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2장에서 분석의 새로운 틀로써 전시공간의 특성을 작품(object), 인간(human), 환경(environment)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는 전시 공간의 내, 외부 요소와 공간의 관계를 인간, 공간, 행태라는 공간 디자인의 근본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개념과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3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세 축의 관계도를 통한 유형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유형의 기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기존 전시공간 유형화 연구를 통해 작품, 인간, 환경 요소를 통한 유형을 가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한다. 이는 전시공간의 특성을 관람자, 공간, 물리적 자원이라는 3개의 인자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통하여 다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계획의 기획단계에 유용하게 시사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시공간의 개념과 구성요소

2.1. 전시와 전시공간의 개념

전시(exhibition)는 어떠한 의도에 따라 개념이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상물과 관람객의 상호교환을 위한 적용수단을 연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⁸⁾ 전시공간은 이러한 전시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소극적으로는 미술관이라는 건축물의 내부 즉 실(room)의 의미이다. 그러나 공간의 개념을 확대해 보면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의미로서 작품(object)과의 관계, 수용체로서 인간의 행태(human behavior), 건축물의 내부적 속성으로서 외부 환경(environment)과의 관계를 포괄하여 담고 있는 것으로 각 분야에서 다루었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공간의 내, 외부적 요소들이 전시라는 행위에 의해 계획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의적으로 다루어졌던 전시공간이라는 용어는 공간 디자인의 대상으로서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전시공간은 건축적 맥락의 구성아래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소통을 위한 구조적 계획과 연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한다.

2.2. 전시공간의 구성 요소 분석

(1) 작품(object) - 공간

인간은 공간을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명료히 이해한다. 특히 전시 공간에서의 사물은 조형 예술품으로써 개념과 소통

4) 장선희, 현대전시의 후기 구조주의적 특성 연구, 전시 설치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론, 2001

5)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6) 정연주, 박물관 공간구조의 체험적 속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2

7) 이종수, 박물관 연속적 전시공간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8) 김경희, 미술관 전시디자인에서의 연속성 구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2

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물질적 형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전시공간에 있어서 작품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작품은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응하는 시각의 대상이다. 즉, 전시공간에 있어 작품은 연속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의 관계의 지점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작품을 주변으로 하는 공간은 관람자의 움직임을 수용하는 곳으로 관람자는 작품과 공간의 긴장 관계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며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즉 전시의 대상으로써 작품은 관람자에게 있어서는 인식과 시각의 대상이며 전시를 행하는 자에게는 주요한 시각적 장치로서의 적용수단인 셈이다.

작품의 이차적 기능은 조형예술의 결과물으로써 오브제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조형예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개념은 앞서 말한 물질적 형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비물질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오브제의 개념은 대상물이 단순한 사물이 아닌 정보를 지닌 인자이며 물질적 형태를 넘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이다.⁹⁾ 이러한 오브제의 개념은 입체주의 이후 나타난 것으로 전시 공간 내에서 시간과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람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대미술에 있어 미니멀 아트나 개념미술의 오브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공간과의 관계로 오브제의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즉 오브제 자체가 공간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오브제로서의 작품의 정보는 작가의 개념이나 체험적 속성의 정도, 그리고 사회, 역사적 의미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이러한 시각과 인식의 과정임과 동시에 사물과 인간이 감성적 차원에서 상호 의사 소통하는 것으로, 작품은 이 과정에서 관람자와 일정한 거리관계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하게 된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관계는 작품의 형태와 크기 뿐 아니라 작가의 개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즉 작품은 시시각각 인식의 대상으로서 관람자, 공간과 관계를 이루며 전시공간의 실의 배치와 공간분할, 규모 등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표 1> 공간에서의 작품의 기능

	공간적 특성	형태적 특성	분류
1차적 기능	공간 시각 요소로써 장을 형성하며 방향, 크기, 영역을 가진 요소로 작용한다.	물질적 대상 독립적	O ₁
2차적 기능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반응-시각체계에 의한 상호 작용, 미적체험을 일으킨다.	비물질, 비정형, 관계중심	O ₂

9) 김내리,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설정과 표현특성을 통해 본 현상학적 공간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4

(2) 인간(human) - 공간

근대 이후 건축을 비롯한 수많은 공간을 다루는 역영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해 인간을 중심에 놓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인간을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이며 단순한 생물체로 단순화 시키거나 인간의 고유의 사유와 감정을 단순하게 다루어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시공간의 경우 내용적 특성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분야이기는 하지만 관람 형태와 동선과 같은 물리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시각, 인지, 행위 등의 견지에서 접근하려 한다. 앞서 언급한 사물(작품)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품이 가지는 다양한 내재적인 환경조건으로 인해 공간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 건축에 필요한 사물과 공간 간의 동질성을 위해서는 공간지각심리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¹⁰⁾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되어 온 공간의 개념은 대상을 지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몸과 지각 중심의 공간경험을 강조해 왔다.¹¹⁾ 이러한 인간 주체의 공간 개념의 일차적 과정은 움직임에 대한 고려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정지된 공간에서 시공간 개념을 엮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전시공간에 있어 이는 심리적으로 미술관의 전시에 호감을 느끼고, 관람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진입, 접근에 관한 행태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의 공간 구성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된다. 즉 앞서 언급한 사물과 공간의 관계에서 일차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간을 주체로 하는 계획에 있어서 연속성으로 구현되는 특징이 있다. 전시 공간 내에서 사물과 공간의 시시각각 기능에 따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고 상호지각의 결과로서 적용하는 인과 관계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연속적 전시 공간 구성은 실제 미술관 건축에서 대지와와의 관련이나 형태적 측면,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외부적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난다.¹³⁾ 이는 관람자로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사물에 반응하기 이전 인간의 행태에 작용하는 잠재적 환경 요소가 있음을 말한다.

전시공간을 연속적 공간체계로 볼 때 접근에 관한 움직임은 내부의 동선과 연결된다. 내부 전시공간에 이르면 관람자의 행태는 단순히 경로를 잇는 개념의 동선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내부의 작품이나 장치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10) 임채진, 전시디자인의 공간분화와 전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1999, p.105

11)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0

12)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2

13) 이종수, 박물관 연속적 전시공간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p.77

정이 부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에서는 공간과 작품의 상호관계를 수용하는 수용체의 역할이 강해진다. 따라서 내부의 건축적 구조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더하여 정보를 읽고 작품의 개념에 개입하는 정도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있어 체험적 속성과 연관이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물(작품)의 2차적 역할과 연관되는 것으로 인간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상황의 문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시지각적 반응의 대상으로서 고려된 경우 시간이 전시 공간 속에 위치하게 되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는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고 관람자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¹⁴⁾ 즉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장치체계로서 작품-공간이 계획되고 관람자는 기초적, 물리적·동인적, 사회적 컨텍스트, 지각적, 메시지 형식적 필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다양한 정보 수용 과정과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표 2>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형태

	구분	특징	분류
Public	미술관의 공공적 역할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회일반		
visitor	전시에 호감을 느끼고, 관람에 참여하기 위해 전시 공간에 진입, 접근	반응-지각체계 인과 관계적, 실증적 환경요소에 반응 실제적 움직임	H ₁
spectator	전시 공간 내에서 공간과 작품의 상호관계를 수용, 커뮤니케이션에 참여	총체적 체험 시공간 초월 내적 요소와의 소통 상대적 움직임	H ₂

(3) 환경(environment) - 공간

공간에 있어 환경은 크게 물리적 외부환경과 사회, 역사적 컨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공간에 있어서 환경의 측면은 시간과 공간의 유기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도시 건축에 있어 도시의 구조, 입지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 장소성에 관한 접근은 탈근대 건축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주요 경향 중 하나이다.¹⁵⁾ 따라서 도시의 문맥 위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물리적 외부환경은 좁은 의미로는 공간이 구성되는 지점을 둘러싼 대지와의 관계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규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전시 공간 자체의 구성적 특성과 전시실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물리적 측면의 환경의 고려는 관람자의 접근과 진입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건물의 구조가 주변 환경에 부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도시와 미술관의 경계를 허물어 두 공간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대 미술관의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¹⁶⁾ 이는 내부로는 연속적 공간 구성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나아가 전시공간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공간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의 포괄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도시적 구조, 미술관의 사회적 요구와 개념의 변화, 입지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과 장소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에서 환경의 최대범위를 도시라는 영역으로 한정 할 때 도시가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적 상황이 미술관의 전시공간에 주요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관이 사회적 변화와 역사적 맥락에 의해 그 역할과 가치를 달리하며 변화해 온 특수성 때문이다. 작품 또한 같은 맥락의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상위의 환경의 개념은 전시공간과 작품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념적 특성을 포함한다. 1960이후 전시에 있어 설치의 개념(instillation)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작품과 전시 공간 간의 구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작품에 있어 환경 요소의 영향으로 지금 여기(now and here)라는 상황을 강조한 장소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장소의 특수성에 입각한 전시의 구현은 이벤트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작품이 전시공간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에 우선을 두게 된다.¹⁷⁾ 이 과정에서 작품은 2차적 기능이 강화되고 관람객의 체험적 속성은 공간과 작품의 총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사회, 역사적 컨텍스트로서의 환경요소는 작품과 공간의 구성관계 이전에 관람자에게는 전시공간의 진입의 행태 이전에 전시에 참여토록 하는 선(先) 경험의 잠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환경 요소는 관람객과 작품, 공간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이며 각각의 요소가 상호연관 되는 유기적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표 3> 공간에 대응하는 환경요소

	기존의 개념	분류
물리적 환경	대지와의 상관관계, 도시구조, 지리적 입지 등	E ₁
사회, 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 사회적 요구와 개념의 변화, 장소성 등	E ₂

2.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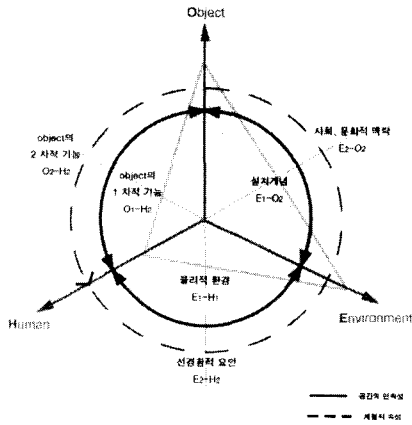
작품, 관람자, 환경이 전시 공간의 구성에 주요한 인자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의 구조를 도식화 할 수 있다. 세 요소를 축으로 하는 도식을 통해 O-H, H-E, E-O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4)김정희, 미술관 전시디자인에서의 연속성 구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론, 2002,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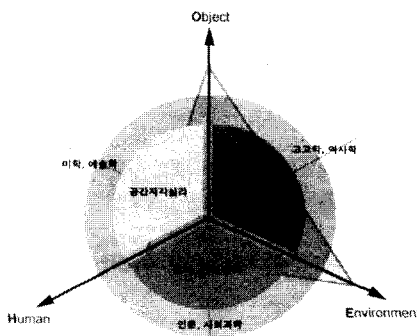
15)박진배, 탈근대건축의 표현적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논문집, 1994, p.332

16)윤난지,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p.135

17)장선희, 현대전시의 후기 구조주의적 특성 연구, 전시 설치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론, 2001, p.25



<도 1> 작품, 인간, 환경 관계 설정에 따른 도식



<도 2> 작품, 인간, 환경의 관계 설정에 따른 기존 전시공간 연구의 영역 분포

<도 2>는 각 요소들이 기존에 다루어져왔던 영역을 구분한 것으로 관람자, 작품, 환경요소의 세 축을 설정함으로써 각각 분리되어 다루어졌던 영역이 종합적으로 통합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시공간을 이루는 요소를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척도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전시 공간의 유형을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유용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각 요소들을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O-H 영역은 관람자와 작품 중심의 영역으로 전시 공간 내의 동선 관계와 오브제와의 상호지각에 따른 측면이 중심이 되는 전시 공간의 유형이고, E-O 영역은 작품과 환경과의 관계 중심 영역으로 관람객이 상호 소통하는 작품의 개념적 속성과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의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의 유형이다. H-E의 영역은 관람자의 접근, 진입 등의 동선 관계와 도시구조, 지리적 입지 등의 물리적 환경을 기본 개념으로 계획된 전시 공간의 유형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기존의 인간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위를 예측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을 계획하게 된다.

세 요소의 관계가 대등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영역에 한정할 수 없는 O-H-E 유형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사물(작품)의 성격이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 비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요인 또한 사회, 문화적 맥락, 정신적 가치로 확대된다. 관람자는 이러한 사물과 환경요소와의 작용을 통해 내적 체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적 속성 또한 기존의 유형 분석에서는 건축(공간) 혹은 작품 중심으로 분리되어 건축적 체험과 예술적 체험으로 나누어져 왔다. 공간의 주체인 관람자에게 있어 체험적 속성은 작품과 환경요인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건축적 체험과 미적 체험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유형은 디자이너가 공간적 개념과 작품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포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체험적 속성은 앞서 구분되는 세 영역에서 구축한 공간의 연속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직화 된다. 그러나 O-H, E-O, H-E 단계의 유형의 경우 공간이 시지각적 연결성을 통해 하나의 완결성을 지니려는 유형인 반면 O-H-E의 유형은 요소들의 관계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하나의 흐름 속에서도 다양하고 유연적인 공간 구성으로 표현된다.

3. 전시공간 구성 요소의 관계에 따른 유형 분류

3.1. 유형분석의 틀

다양한 개념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대의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앞서 살펴 본 세 가지 축의 설정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다. 각 요소간의 관계성은 두 축을 잇는 변의 길이로 표현되는데 이는 절대적 양으로 측정되는 수치가 아닌 상대적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요소간의 관계로 나타나는 세 영역에 있어 상대적인 위계를 정하고 그 등위를 변의 길이로 한 삼각형의 도식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좌표에 포진하는 삼각형의 면적과 무게중심점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무게중심점이 위치하는 영역을 그 유형으로 하는 상대적인 척도이다. 단 무게중심점이 내부로 향할수록 요소의 개별적 특성이 강해지고 외부로 향할수록 관계 중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 분석의 틀을 이용해 전시공간을 O-H, H-E, E-O 그리고 O-H-E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간 유형화의 경향을 살펴보면 연속성의 구현, 시간의 개념 적용, 체험적 속성의 연구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들이 모두 상이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유사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여 혼돈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 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특성들을 토대로 앞서 살펴본 세 요소의 관계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자 한다. 최근 전시공간의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과 개념이 다양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간의 평면, 입면적 구성에 덧붙여 행태적 해석과 고려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완결성과 연속성이라는 기준을 삼아 다음과 같이 공간 구성을 유형화 한다. 완결성은 기존의 공간 구성의 개념에서 중심성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기존의 물리적 pattern의 중심성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역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행태적 측면의 개념이다. 전시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동선 패턴, 그리고 공간의 상관구조가 하나의 구심점을 갖거나 혹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져 도입과 종결이 하나의 경로로 형성되는 것을 완결적, 그러한 경로가 이탈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경우로 중첩되는 등의 변수를 가지는 경우 미완결적으로 유형화한다. 연속성의 개념은 최소한의 요소로 구축된 단위 공간 사이의 관계도를 말하는 것으로 공간 구성 요소 측면의 개념이다. 앞서 구분한 네 가지 영역을 완결성과 연속성의 두 가지 개념의 조합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이는 완결성과 연속성이 사물, 인간, 환경의 관계의 정도와 위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앞서 살펴본 작품, 인간,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을 축으로 분석하여 유형화 한다. 이 과정에 있어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은 완결성/연속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표 4> 공간 유형화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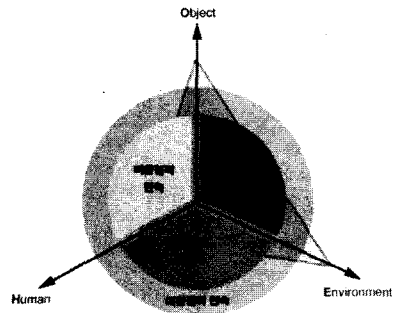
완결성 / 행태적 구분		연속성 / 공간 구성적 구분	
완결적	미완결적	연속적	단속적
전시 프로그램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	관람자의 경험 중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둠	단위 공간 사이의 관계 긴밀	단위 공간 사이의 관계 미약

32. 유형별 공간적 특성 : 가설

전시 공간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있어 완결성이 강화될 경우 균일하고 중립적인 공간을 지향하게 되며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연결과 단속의 속성은 완결성의 강약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각 영역에 있어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의 유형을 예측해보면 E-O영역의 경우 환경과 오브제 중심의 공간으로 지각차원의 상호관계가 우선됨으로 전체적 공간의 흐름 보다는 물리적 환경으로써 관계지점이 우선되어 완결성이 강화되고 단속적인 유형으로 표현될 것이라 사료된다. O-H영역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람자의 시지각적 환경요소로써 작품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석의 관점에서의 오브제와의 관계의 영역으로 그 중심성이 관람자의 신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심성이 움직이는 신체 내부에 존재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물리적 중심성과 방향성이 깨어지고 미확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경우 미완결적 성향

에 작품과의 관계중심성에 따른 단속 구조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H-E영역의 경우 1차적으로는 대지, 도시와의 물리적 상관관계, 2차적으로는 인간의 기억과 관련한 역사 문화적 맥락, 장소성에 관련된 영역으로 인간의 인식에 대응하는 환경의 시간성과 물리적 연관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술관 전시공간의 건축적 맥락이 전시 공간 내부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 연속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O-H-E유형의 경우 요소 개별 간의 관계 중심이 아닌 다중(hyper)의 관계로 인간의 신체 중심성에 따른 미확정성과 동시에 건축적 맥락에서의 연속성의 개념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역학적 관계성을 지니면서 요소 간의 관계성은 수용자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로서 미완결적인 연속의 유형으로 가정한다.

즉 앞서 분석의 틀로써 제시되었던 4가지 영역은 완결성, 연속성에 따라 완결적 단속구조, 미완결적 단속구조, 완결적 연속구조, 미완결적 연속구조로 유형화됨을 가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작품-인간-환경의 관계도에 따른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표현적 특성과 유형화에 따른 공간적 특성이 일치하는지를 통해 유형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표현적 특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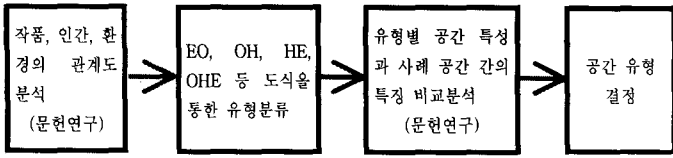


<도 3> 작품, 인간, 환경의 축설정에 따른 공간 유형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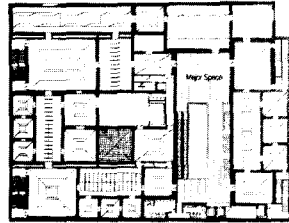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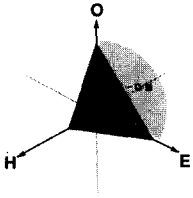
33. 사례 분석에 따른 유형별 공간적 특성

앞서 살펴본 작품-인간-환경의 관계설정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 E-O, O-H, H-E, O-H-E의 유형의 대표사례로 각각 휴스턴미술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 쿤스트할을 문헌을 통해 분석한다. 사례선정 이유는 네 미술관 건축이 동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해 작품, 인간, 환경의 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유형화하는 대표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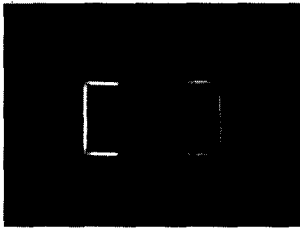
각 사례의 유형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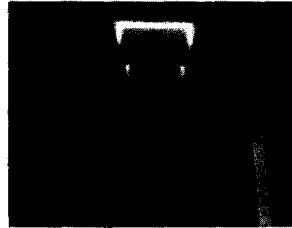
(1) 완결적 단속 구조 : 휴스턴 미술관 (MFAH)



<그림 1> 휴스턴 미술관 평면도



<그림 2> 휴스턴 미술관의 신관과 구관을 잇는 통로에 설치된 제임스 터렐의 작품



<그림 3> 휴스턴 미술관 신관의 내부

1958년 Mies가 설계한 휴스턴 미술관은 1990년 Robert Venturi와 Scott Brown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 미술관 주변 지역이 계획되고 신관이 Jose Rafael Moneo의 설계로 증축되었다.

① 작품-환경 중심의 계획

휴스턴 미술관 구관과 주변의 마스터 플랜에 맞추어 계획되어진 신관은 도시적 구조에 대응하여 도시의 모듈인 블록 단위를 전체로 하는 폐쇄적 조형이다. 그러나 내부의 동선은 기존의 구관과 신관을 잇는 개념으로 계획되어 지상과 지하 모두 출입구와 통로로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로는 휴스턴 미술관의 전시공간에 연속된 개념은 아니며 내부 공간은 작품과 공간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전시되는 작품이 주로 고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공간이 그룹핑 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이 작품의 크기와 형태에 대응하여 천장의 높이, 모양 등이 다르게 계획되었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¹⁸⁾ 이는 휴스턴 미술관의 전시공간이 환경요인과 작품에 관련하여 요소 중심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②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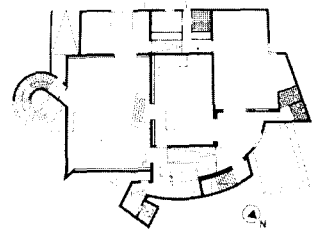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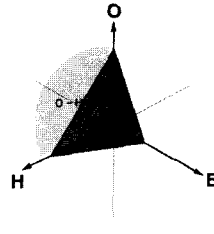
각 실은 '빛과 공간'이라는 건축적 맥락으로 구성되어 천장

18)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 현대건축사, 2002

을 통해 자연광을 유입하고 있는데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공간은 James Turrell¹⁹⁾의 설치 작품을 통해 작품의 예술적 체험과 건축적 체험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고 있다. 휴스턴 미술관에 있어 빛은 전체적 조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개실로 단절된 공간에 있어 작품과 공간의 관계에 따른 변화를 객관화시켜 전체적으로 동일한 이미지로 느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시간의 전후에 따른 연속성의 개념보다는 균일한 전시상태를 제공하려는 근대 전시공간의 연속된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행태적 측면에서 관람자는 독립적이면서도 균일한 전시공간을 전시 프로그램에 의해 순차적으로 관람하는 완결적 속성을 지닌다.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구 휴스턴 미술관과의 물리적 관계 및 도시의 모듈에 따르는 폐쇄적 구조 속에 전시될 작품의 물적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개실 구조로 단속성을 취하고 있다.

(2) 미완결적 단속 구조 :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그림 4>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평면도



(좌측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림 5> 비트라 뮤지엄의 외부조형감

<그림 6> 비트라 뮤지엄의 전시연출

<그림 7> 내부 공간의 불안정한 개방감

<그림 8> 내부로 확장된 매스감과 전시연출 사이의 시각적 조화

19) 제임스 터렐은 1960년대 말부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빛과 공간 미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실내의 빛 설치 작업, 외기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 주는 공간 작업을 통해 지각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을 행해왔다.

Vitra design museum은 vitra international의 컬렉션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Basel에 있는 본사와 공장 인근에 Frank O. Gehry의 설계에 의해 세워졌다. Vitra는 1957년 유럽에서 Charles Eames, Ray Eames, George Nelson의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어필하기 시작해 위대한 디자이너와 함께 오피스 가구 분야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그룹이다.²⁰⁾ 이들은 아방가르드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감각으로 그들의 작품을 선보여 생산하고 컬렉션하는 한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세계 가구의 수집, 전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수렴하기 위해 디자인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① 작품-인간 중심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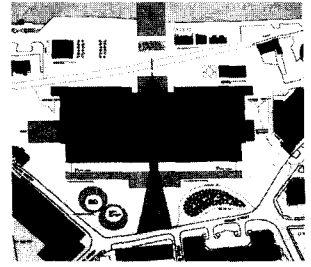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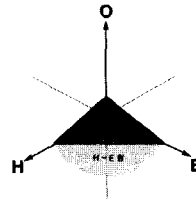
충돌과 변화 무질서로 다가오는 비트라 뮤지엄은 입체화와 표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근대건축과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변모됨을 보여주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외관의 칼라는 하얀색이며 연속되면서 변화하는 형태의 회오리가 또 다른 형태와 관계를 맺고 박물관 내부는 역동적이면서 강한 느낌을 주는 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문자로 하여금 내외부가 동시에 들들 말려가는 듯한 인상과 함께 작품의 전시연출과의 조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인간의 시지각적 감각을 극대화 시킨다.

②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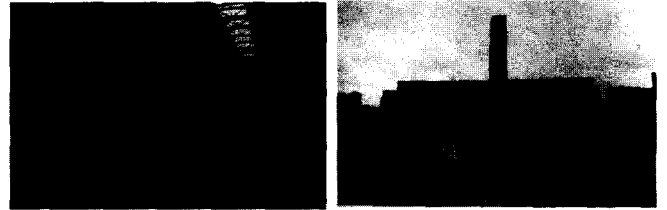
비트라 뮤지엄은 단일 소규모의 건물로 전시공간 구성은 2개 층의 공간이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각 실은 평면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위계나 방향성이 없고 2층과 1층의 전시실 일부가 열려 있어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²¹⁾ 계리의 해체적 조형성에 의해 각 실은 기존의 안정된 구조와 개념에서 탈피한 대상으로서 생소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²²⁾ 뒤틀린 여러 개의 매스가 중첩된 형상은 내부로까지 이어져 각각의 공간을 형성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개방되는 미확정적인 구조를 이룸으로써 vitra의 작품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역동적 구조 내에서 가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되고 있는데 공중에 매어 달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체험에 앞서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통한 역동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즉 행태적 측면에서는 지각적인 생소함을 유발하여 수용자 중심의 해석이 가능한 미완결적인 구조를 지니며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는 매스의 다양한 중첩에 의한 불안정한 속성으로 인해 위계나 방향성이 없는 단속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3) 완결적 연속 구조 :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



<그림 9>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의 배치도



(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그림 10> 테이트 모던 아트 갤러리의 대형 중심 공간

<그림 11> 테임즈 강의 북측에서 바라본 전경

<그림 12>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바라본 세인트 폴 성당과 밀레니엄 브리지

런던 템즈강 서남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원래 화력 발전소였다. 영국의 명물인 빨간 공중전화 부스를 디자인한 자일스 길버트 스콧경이 1947년 설계한 것으로, 1963년 가동에 들어가 1981년 문을 닫은 후 방치된 채 있었다. 그 뒤 낙후된 도시의 전형으로 보이던 이 지역은 정체된 후 쇠퇴해 가는 영국 사회의 단면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이 발전소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1994년 미술관 건립을 위한 국제건축현상설계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스위스의 차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므롱은 새로운 전시공간을 찾던 테이트 재단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정부의 요구를 골고루 수용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건물대신 기존 발전소의 외형 및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만 고친 설계를 제시하여 수주에 성공했다. 길버트 스콧경의 건축물을 예술로 인정하며 보존하길 원하는 영국인들의 마음과 대중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선정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① 환경-인간 중심의 계획

이 미술관 계획은 도시의 맥락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과거 뱅크 사이드 전기 발전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기존 환경과 새로

20)공간, 1999년, 7월호

21)서상우, 뉴 뮤지엄의 공간구성과 상관관계 연구,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1권, 1998, p.58

22)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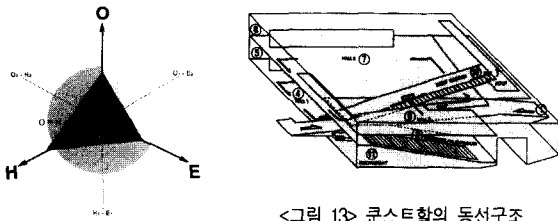
은 기능을 동시에 포용하는 개념으로 계획하여 런던의 과거와 현대를 연속적으로 구상한 예라 할 수 있다. 테임즈 강을 경계로 북측의 세인트 폴 사원의 가로축과 직결되는 Millennium Footbridge(Norman Foster 설계)와 연결되어 문화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테임즈강을 사이에 두고 세인트 폴 사원과 이 미술관은 수직 수평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대지의 선정에 있어서부터 대중의 접근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성은 내부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내부의 전시공간은 미술관 건물의 축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따라 진입할 수 있다. 내부로 진입하면 기존의 터빈홀이었던 대형 전시 공간이 있으며 전시의 내용은 이러한 기존의 상황에 맞도록 대형의 설치물로 대체되어 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²³⁾

②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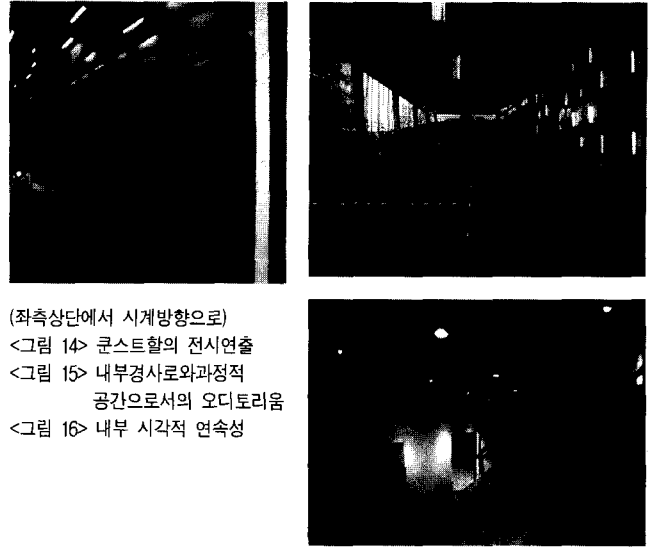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속된 거대공간은 전체의 공간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중심성²⁴⁾을 형성한다. 이 거대 홀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각각의 전시공간들은 그룹화되어 상관도가 높아지게 된다. 테이트 모던과 같이 도시의 맥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유형의 경우 관람자의 진입과 접근, 도시의 경관에 대응하는 형태 중심으로 계획되어 내부의 전시 공간 또한 외부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연속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즉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축선감과 내부의 대형 홀의 중심성이 일련의 과정으로써 연속되는 완결적 유형을 지니며 공간구성 또한 그에 따르는 연속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4) 미완결적 연속 구조 : 쿤스트 할



<그림 13> 쿤스트할의 동선구조



(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그림 14> 쿤스트할의 전시연출
<그림 15> 내부경사로와과정적 공간으로서의 오티토리움
<그림 16> 내부 시각적 연속성

Kunsthal Museum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의 대규모의 박물관 공원 내 남단에 위치한다. Rem Koolhaas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 뿐 다양하나 현대 미술의 형식과 개념을 수용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① 환경-인간-작품 중심의 계획

전체적인 대지구조가 약 6m 정도의 고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형적 낙차는 전시공간의 내부로 연결되는 내부 경사로의 주축이 된다. 외부에서 시작되는 경사로를 따라 내부의 전시공간에 이르면 제일 먼저 다양한 전시연출이 가능한 free plan형식의 전시공간이 나타난다.²⁵⁾ 이와 같이 object중심의 전시공간을 거치면 큰 홀로 이루어진 2전시실에 이르게 된다. 2전시실은 대형 홀이지만 외부로의 개방감으로 인해 중심성을 형성하기보다는 경사로에 연속되는 과정의 공간이다. 2층의 전시실을 지나 3층에 이르면 외부의 옥상정원으로 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2층과 3층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연속적 흐름을 더욱 강하게 한다.

② 공간적 특성

즉 전시공간 내부의 흐름이 수평적 흐름이면서도 동시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단순히 전후관계로써 존재하는 연속성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의 상대적 위치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²⁶⁾ 이는 외부 물리적 환경으로써 경사로를 내부 공간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수평 구조 뿐 아니라 수직구조의 단절까지 통합시킨 결과이다. 이는 쿨하스의 관람자의 위치에 따른 사물(object), 인간과 공간과의 상호관계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하나의 순환체계처럼 보이는 경사로(ramp) 개념의 공간은 외부에서는 연속되지만 내부에서는 건물 구조의

25)김민재, 쿤스트할 뮤지엄의 미적체험, 박물관건축학회논문 1호, 1998, p.22

26)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90

23)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 현대건축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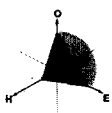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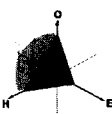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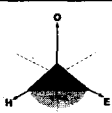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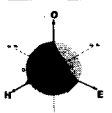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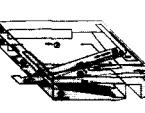
24)이중수, 박물관 연속적 전시공간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p.37, p.41 이중수는 이 논문을 통해 1960년대 이후의 박물관 전시공간의 가장 큰 특징을 연속성이라 결론 내리면서 20C중반 이후 나타나는 연속적 구성의 특징을 나선형 순환동선, 전이공간,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대지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대형 중심공간의 시지각적 개방감과 수평 혹은 수직적 연결의 역할을 공간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직교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결합하여 내-외부간의 모호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기울어진 바닥면과 기둥은 무질서를 증가시킨다.

즉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반영하여 내부공간까지 하나의 연속된 순환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2차원적 그리드 체계를 벗어나는 공간구성으로 무질서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곧 관람자의 지각행위를 통해 공간과 사물의 관계가 정해지는 상대적 상호관계성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외부의 물리적 환경요소와 공간, 내부의 사물(작품)과 공간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수용자 측면의 상대적 연속성 즉 미완결적인 연속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3.4. 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현적 특성

<표 5>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른 공간의 표현적 특성

유형	공간사례		공간계획	표현적 특성	
				형태적	구조적
		환경(E)-작품(O) 관계 중심 공간	완결적	단속적	
E-O 유형 완결적 단속구조	Jose Rafael Moneo (1937-)	휴스턴 미술관 신관 (1992-2000)	도시의 유형(grid), 작품의 크기와 형태에 대응	'빛'의 요소를 활용하여 전체공간의 객관화	작품군 (grouping)에 대응하는 개실구조
		작품(O)-인간(H) 관계 중심 공간	미완결적	단속적	
O-H 유형 미완결적 단속구조	Frank O. Gehry (1929-)	비트라 디자인 유지업 (1987-1989)	비트라 이미지 구축, 수용자 중심의 해체적 조형	해체적 조형감에 따른 미확정성	매스의 중첩에 따른 공간 분절
		인간(H)-환경(E) 관계 중심 공간	완결적	연속적	
H-E 유형 완결적 연속구조	Herzog & Meuron	테이트 모던 갤러리 (1994-2000)	도시의 시간 공간적 맥락을 보존, 연결함	대형 hall에 의한 중심성 형성	도시적 축선감에 따른 시각적 연속구조
		작품(O)-인간(H)-환경(E) 관계 중심 공간	미완결적	연속적	
O-H-E 유형 미완결적 연속구조	Rem Koolhaas	Kunsthal Museum	물리적 대지구조와 내부 동선의 수직-수평적 통합	3차원적 grid 체계에 의한 상대적 상호관계성 증가	ramp의 공간화에 따른 외부무스적 순환구조

완결적 단속 구조로 표현되는 전시 공간의 표현적 특성을 살펴보면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시각적 요소를 도입하여 전시공간을 탈맥락화 시키고 공간의 분리를 통해 전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화 한다. 이는 근대 이후의 고전적 전시 연출 방법이지만 현대 전시공간에 있어 그 양상은 작품과 공간의 상호 관계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이트 큐브'와 같은 극단적 중립 구도에서 탈피하여 '빛'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작품과 공간간의 시각적 조화를 중시하는 구조로 표현되어진다. 미완결적 단속구조의 경우 관람자의 미적 체험에 중심을 둔 구조로 미확정적 요소를 포함하는 3차원적 건축 조형에 기인한다. 이러한 전시공간 유형은 그 내부적 구성 요소 측면보다는 건축의 미적 체험과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형적 특질이 내부까지 확장되어 우연적인 개방과 분절을 포함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완결적 연속구조의 유형은 대형공간을 통해 중심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시각적 연속성을 이룬다. 이는 고전적 박물관 건축의 중심성형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현대의 미술관 유형에 있어서는 전이공간, 혹은 대형 공간 등을 통해 평면적인 상징성 보다는 보이지 않는 역학적 중심점 즉, 공간간의 상관관계를 긴밀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내부의 프로그램적 질서를 따르는 완결적 단속 구조와는 달리 도시의 구조에 대응하려는 환경적 맥락의 질서에 따른 것으로 경관(vista)의 도입에 따른 개방성 또한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미완결적 연속 구조는 미완결적 단속 구조가 가지는 수용자 중심의 미확정적 건축 체험 요소와 완결적 연속 구조가 지니는 공간관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3차원적인 건축 조형을 통해 생성하고 무질서한 공간을 형성하지만 내부는 작품과 인간과 환경 요소가 상대적 상호관계성을 잃지 않도록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연속성을 형성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통합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방법을 통해 전시공간을 새롭게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해석과 계획에 있어 유용한 척도를 제시하기 위해 사물, 인간, 환경이라는 다소 거시적인 요소를 통해 공간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요소들 간의 관계도를 통한 공간분석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요소가 지니는 상관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 그 개념과 위상을 달리해 온 사물, 인간, 환경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요소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향하는 세 축의 설정을 통해 4가지 영역으로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각 영역의 유형을 검증하기 위해 20C 후반 현대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그 표현적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시 공간이 작품, 인

간, 환경의 요소의 관계도에 따라 공간의 계획의 있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는 곧 공간의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과 공간의 조형적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표현적 특징은 행태적 속성인 완결/미완결, 공간 구성적 요소인 단속/연속의 구조로 유형화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전시 공간 분석이 2차원적, 평면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던 반면, 전시 공간을 작품, 인간, 환경을 매개하는 장으로 설정함에 따라 관계 중심적이고 상대적인 체계로 공간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둘째,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졌지만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전시공간의 논의를 통합할 수 있었다. 과거로부터 그 개념과 위상을 달리해 온 작품, 인간, 환경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관계성을 도식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던 전시 공간의 논의를 포괄하는 유형화가 가능해졌다. 셋째, 기존의 전시공간 분석이 기 건축물의 평가 혹은 개념적 해석에 그쳤던 반면 행태적 속성과 공간 구성의 유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계획의 단계에 유용한 가치를 도출함에 의미가 있다. 각 요소의 관계적 위상에 따른 영역을 행태적 속성인 완결/미완결, 구조적 특징인 연속/단속으로 유형화하고 그 표현적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작품, 인간, 환경의 위계설정에 따른 표현적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시각에서 전시공간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를 보완하고 더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례를 통한 상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개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미술관 전시 공간을 하나의 맥락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시공간의 계획과 표현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시험하는 단계로써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 관계도에 의한 도식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요소들 간의 관계와 위상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2.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1
3.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4.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 현대건축사, 2002
5.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의 화두 -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6. 조지 엘리스 비코, 양치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김영사, 2001
7. 김기현, 건축 환경 인식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1
8.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9. 임채진, 전시디자인의 공간분화와 전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1999

10. 이옥남·공순구·임채진, 공간구문론에 의한 미술관 실내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3권, 2000
11. 장선희, 현대 전시의 후기 구조주의적 특성 연구, 홍익대 석론, 2001
12. 이종수, 박물관 연속적 전시공간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7
13. 김내리, 공간과 오브제의 관계설정과 표현특성을 통해 본 현상학적 공간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4
14.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론, 2002.
15. 서상우, 뉴 뮤지엄의 공간구성과 상관관계 연구,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1권, 1998
16. 김민제, 콘스트랄 뮤지엄의 미적체험, 박물관건축학회논문 1호, 1998
17. 공간, 1999년, 7월호
18. 김경희, 미술관 전시디자인에서의 연속성 구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론, 2002
19. 정연주, 박물관 공간구조의 체험적 속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론, 2002
20. 박진배, 탈근대건축의 표현적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논문집, 1994

<접수 : 2004. 5. 8>